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 영향요인: 2012 사회조사 기반

이성희*, 권현수²

¹경북대학교 간호대학, ²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Marriage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in Korea: Based on 2012 Social Survey

Sung-Hee Lee^{1*}, Hyun-Soo Gweon²

¹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2년 사회조사 자료 중 30대 미혼여성 529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는 SPSS Ver. 20.0을 이용하여 χ^2 test와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연령($\text{Exp}(b)=.90, p=.025$), 이혼에 대한 견해($\text{Exp}(b)=3.81, p<.001$), 재혼에 대한 견해($\text{Exp}(b)=3.09, p=.001$) 그리고 결혼관($\text{Exp}(b)=.80, p<.001$)이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30에서 34세 미혼여성과 35에서 39세 미혼여성간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경제 활동 여부($\text{Exp}(b)=19.58, p=.003$)였다. 연구결과는 가족과 결혼가치관 교육과 경제활동을 하는 35세에서 39세 미혼여성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marriage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in Korea. Analysis of data on 529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which were taken from the 2012 social survey, was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well as descriptive statistics by SPSS version 20.0. Results showed that age($\text{Exp}(b)=.90, p=.025$), opinions on divorce($\text{Exp}(b)=3.81, p<.001$) and remarriage($\text{Exp}(b)=3.09, p=.001$), and value on marriage($\text{Exp}(b)=.80, p<.001$) were independent predictors of opinions on marriage. Economic activity($\text{Exp}(b)=19.58, p=.003$) was found to be an independent predictor of opinions on marriage for the 35-39 year old women differ from 30-34 year old women predictors.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a need for developing family and marriage value-centered education and the low-fertility policy for the 35-39year old actively working women considering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marriage.

Key Words : Family, Marriage, Unmarried, Wome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출산,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 가정 양립가능 시스템 구축,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조성 등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1].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활동을 하는

본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ung-Hee Lee(Kyungpook National Univ.)

Tel: +82-53-420-4935 email: leesh@knu.ac.kr

Received November 26, 2014

Revised (1st December 12, 2014, 2nd December 23, 2014)

Accepted January 8, 2015

기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워 자녀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초래한다는 진단 하에 수립된 것으로 기혼여성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2]. 즉, 최근 저출산의 배경원인으로 부상하는 가임 인구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만혼과 비혼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3].

만혼의 지표로 평균초혼연령이 이용되는데, 2013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 비해 3.6년 상승한 32.2세였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에는 25.7세였던 반면에 2013년에는 29.6세로 상승하였다[4].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비혼 남녀 인구의 증가 또한 뚜렷한데, 2010년 35세에서 39세 남성의 비혼 구성비는 26.9%였고, 여성의 비혼 구성비는 12.9%로 이는 1995년에 비해 남녀 각각 약 4배로 증가한 것이었다[5].

이러한 만혼과 비혼인구 증가에 대응한 저출산 정책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견해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6,7].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와 경제활동 증가로 남녀 간 평등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규정화된 남녀 역할 구별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게 되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초래하여 결혼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어 결혼을 당위적으로 보는 견해 또한 약해진 현상을 불러왔다. 실제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미혼 남성은 23.4%였고, 미혼 여성은 16.9%로 여성이 남성보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35세에서 44세 미혼 여성의 결혼 당위성에 대한 동의는 9.4%에 불과하여[8] 향후 남성보다 여성의 비혼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인간은 가족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 즉, 결혼에 대한 의향과 결정은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결혼상태,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9]. 가족 관계의 질이 좋다는 것은 가족이 건강함을 의미하고[10], 가족의 건강성은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관계의 만족도로 측정되어질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에 따른 결혼 견해를 살펴본바 남성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 선택을 낮출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에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 정도는 결혼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1]. 그러나

부모의 결혼생활 갈등과 이혼이 아들보다 딸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혼 선택을 늦추기도 하였다[12]. 또한 미혼 여성은 미혼 남성과 달리 30대부터 가족관계 만족도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혼인 지위의 차이가 있다는 보고[9]도 있었으므로, 여성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결혼견해와 연관 지어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 가치관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족에 대해 가지는 바람직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념으로[13], 가족관계 결혼관을 포함하는데, 가족관은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다양한 가족형태 수용에 대한 견해를 다루면서 전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후자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이상적인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희망하는 자녀수가 적어진다고 하였다[13,14]. 최근에 결혼관은 결혼이라는 제도적 절차 없는 혼전 동거 등을 결혼의 형태로 보는 가에 대한 변화된 견해를 반영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보수적인 결혼관에 비해 개방적인 결혼관을 가질 경우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주장이 있었다[15].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견해를 살펴볼 때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파악이 중요한데 이는 특히 30대에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3]. 특히 30대 미혼 여성 중 35세를 전후로 결혼견해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고[7], 35세를 전후로 여성은 발달단계의 경계선상에 있어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지각이 어느 정도 변화하기 때문에[16,17], 30대 미혼여성을 35세를 전후로 구분하여 결혼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미혼 여성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저출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족 가치관과 결혼견해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혼 남녀[8,13]와 대학생[14,18] 대상으로 제한적이었고, 30대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견해와 영향요인을 가족관계 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의 관점에서 조사하여, 향후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저출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30대 미혼여성의 결혼견해와 영향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 결혼관, 결혼 견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견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30-34세 대상자와 35-39세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통계청의 2012년 사회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여 한국 30대 미혼 여성의 결혼 견해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조사는 전체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등 총 10개 부문 중 매년 5개 부문을 선정하여 부문별 2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2012년 사회조사에서는 전국 7대 도시와 9개도의 동부, 읍면부 등 모두 25개 지역으로 층화하고, 조사가구별로 주택유형, 농가비율, 유배우 비율, 1인 가구 비율, 60세 이상 인구 비율, 자가 비율 및 행정구역 등 지역별 분류순서를 정하여 조사구 명부를 정리하여 표본 추출틀을 완성하였다. 표본추출은 25개 지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가구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표본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무작위로 최초 가구를 설정하여 그 가구를 포함해서 연속하여 12가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표본가구를 확정하였다[19]. 결과적으로 1,452개 표본 조사구를 대상으로 17,424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42,832명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23일에서 6월 5일까지 사회조사가 이루어졌고, 본 연구에서는 42,832 가구원의 원자료 중에서 30-39세 미혼 여성 529명의 자료만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이용된 분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2012년 사회

조사 자료를 확보하였다. Survey 조사에서는 표본추출율과 완료율을 보정한 가중치를 통하여 모집단에 대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 2012년 사회조사에서는 가중치를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보정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어진 값으로 추출율의 역수로 층별 확률비례계통추출을 사용함으로써 자체가중치가 되고 있고, 조사과정에서 항목 무응답은 인정하지 않았고 가구 단위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를 허용하였으므로 별도의 무응답 조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후층화보정은 성, 연령별로 추계인구에 맞게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 시 사회조사 원자료에 제시되어 있었던 가구원의 수만 가중치로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회조사 가구표의 개인관련 사항(1), (2)의 항목 중에서 ‘거주지역’, ‘연령’, ‘교육정도’,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 여부’를 통해 파악하였다. 거주지역은 ‘동부’와 ‘읍부’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 평균뿐만 아니라 30-34세, 35-39세 두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육정도는 원자료에서는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의 7구간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안 받았음’,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의 응답수가 적어 ‘고등학교 졸업 이하’에 포함하여 전체 4구간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를 ‘하였다’와 ‘하지 않았다’의 이분형으로 측정하였다.

2.4.2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는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유대 관계를 의미하므로[9],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의 가족관계 만족도 문항 중 ‘자기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문항의 합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매우 불만족에 1점, 매우 만족에 5점을 부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4.3 가족관

가족관은 가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가족주의 이념이나 정상 가족에 대한 이데올로

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가족구성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다양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가족의 다양성을 어는 정도 수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20].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Kang et al.[2]과 Yu[13]는 다양한 가족 수용도에 대한 태도를 가족관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도 이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 중에서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를 묶어 ‘이혼 반대’로 하였고, ‘경우에 따라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를 ‘중립’으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를 ‘이혼 찬성’으로 분류하였다. ‘잘 모름’으로 나온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재혼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를 묶어 ‘재혼 반대’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를 ‘중립’으로,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를 ‘재혼 찬성’으로 분류하였다. ‘잘 모름’으로 나온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4.4 결혼관

결혼관은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데[21], 결혼관을 측정할 때 결혼을 해서 가

족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규범을 따르지 않는 개인 중심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측정하여 저출산 관련 종속 변수와 연관 짓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Kang et al.[2]은 결혼관을 계약결혼, 혼전 동거,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태도로 측정하였고, Lee[7]는 결혼관 측정에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지는 개방적 결혼관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결혼관은 사회조사에서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4문항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즉,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결혼생활은 당사자 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전적으로 반대에 1점, 약간 반대에 2점, 약간 동의에 3점, 전적으로 동의에 4점을 부여하였고, 두 번째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 결혼관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2.4.5 결혼 견해

결혼 견해는 결혼 필요성[13] 혹은 결혼 의향[8,22]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조사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Table 1] Opinions on Marri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29)

Characteristics	Total n (%)	Opinions on marriage		χ^2	p	
		Agree n (%)	Not agree n (%)			
Residence	Dong bu	327(61.8)	102(31.2)	225(68.8)	0.36	.560
	Eup bu	202(38.2)	58(28.7)	144(71.3)		
Age(year)	30-34	372(70.3)	127(34.1)	245(65.9)	9.01	.003
	35-39	157(29.7)	33(21.0)	124(79.0)		
		M±SD	33.2±2.7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147(27.8)	32(21.8)	115(78.2)	9.52	.023
	College	141(26.7)	41(29.1)	100(70.9)		
	University	191(36.1)	71(37.2)	120(62.8)		
	Graduate school	50(9.5)	16(32.0)	34(68.0)		
Economic activity	Yes	391(73.9)	127(32.5)	264(67.5)	3.55	.067
	No	138(26.1)	33(23.9)	105(76.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Research Variables

(N=529)

Variables	M±SD, n(%)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7.17±1.87
	Min2 Max10
Value on family	
Opinions on divorce	Agree 111(21.0)
	Not agree 100(18.9)
	Optional 301(5.9)
	Not sure 17(3.2)
Opinions on remarriage	Agree 58(11.0)
	Not agree 37(7.0)
	optional 397(75.0)
	Not sure 37(7.0)
Value on marriage	10.38±2.11
	Min4 Max16
Opinions on marriage	Agree 160(30.3)
	Not agree 369(69.8)

않아도 좋다'의 응답을 묶어서 '결혼 반대'로 하였고, '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해야 한다'를 묶어 '결혼 찬성'으로 이분화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분석한 선행 연구[8,13,23]의 분류 근거를 따른 것이다.

2.5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족관측정 변수 중 이혼 견해, 재혼 견해, 입양 견해는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 결혼관, 결혼 견해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견해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χ^2 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30-34세 집단과 35-39세 집단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61.8%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33.2세였으며 30-34세가 70.3%를 차지하여 35-39세 29.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36.1%로 가장 많았고, 지난 1주간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73.9%가 경제활동을 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 결혼관, 결혼견해

대상자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평균 7.17(±1.87)점이었고, 가족관 중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 대상자의 21.0%는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고, 재혼에 대해서는 11.0%만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다. 대상자의 결혼관 점수는 10.38(±2.11)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결혼 견해를 살펴보면 30.3%가 결혼에 찬성하였고, 나머지 69.7%가 결혼 반대의 견해를 보였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견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혼 견해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30-34세 집단에서 결혼에 찬성하는 경우는 34.1%였던 것에 비해 35-39세 집단에서는 21.0%에 불과하였다($\chi^2=9.01, p=.003$).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 대상자가 결혼에 찬성하는 경우가 37.2%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chi^2=9.52, p=.023$). 경제활동 여부에 따른 결혼견해의 차이는 없었으나, 결혼견해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취업 여부에 따른 결혼견해 혹은 결혼 태도의 차이가 있음이 일관되게 검증되었으므로, 다음의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투입변수로 채택하였다(Table 1).

3.4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원에 가중치를 부여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특성을 먼저 투입한 후 (모델1), 가족관계 만족도(모델2), 가족관(모델3), 결혼관 (모델4)을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종속변수인 결혼견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들은 결혼에 반대하는 견해를 준거로 삼아 결혼에 찬성하는 응답의 로그 승산치(Log-odds)로 표시된 회귀계수 혹은 1보다 큰 승산비는 결혼 찬성이 결혼 반대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음의 회귀계수 혹은 1보다 작은 승산비는 결혼 반대가 결혼 찬성보다 높음을 의미 한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만이 결혼견해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반대 견해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88,p=.001). 가족관계 만족도를 투입한 모델2에서 연령은 여전히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나(Exp(b)=.88,p=.001),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족관을 투입한 모델3에서 연령, 이혼견해, 재혼견해가 결혼 견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반대 견해가 높아졌고 (Exp(b)=.90,p=.018), 이혼에 반대할수록(Exp(b)=4.52,p <.001), 재혼에 찬성할수록(Exp(b)=2.99, p=.001) 결혼 찬성 견해를 보였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결혼 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결혼관을 최종 투입한 모델4에서는 연령은 여전히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에 있었으나(Exp(b)=.90,p=.025) 가족관계 만족도는 역시 결혼견해와 관련이 없었다. 반면에 이혼견해, 재혼견해, 결혼관이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이혼에 반대할수록(Exp(b)=3.81,p<.001), 재혼에 찬성할수록(Exp(b)=3.09,p=.001), 보수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Exp(b)=.80,p<.001) 결혼 찬성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Table 3]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Marriage of Subjects : Total

Variables	Model I (n=529)			Model II (n=529)			Model III (n=484)			Model IV (n=484)			
	b	Exp (b)	p	b	Exp (b)	p	b	Exp (b)	p	b	Exp (b)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0.13	0.88	.001	-0.11	0.89	.004	-0.11	0.90	.018	-0.10	0.90	.025	
Education ¹⁾	High School or less	-0.39	0.68	.084	-0.38	0.68	.311	-0.39	0.68	.361	-0.44	0.65	.310
	College	-0.25	0.78	.289	-0.19	0.83	.601	-0.25	0.78	.548	-0.03	0.81	.617
	University	0.20	1.22	.556	0.24	1.27	.486	0.28	1.32	.463	0.23	1.25	.563
Economic activity ²⁾	Yes	0.34	1.41	.144	0.36	1.43	.131	0.34	1.40	.207	0.31	1.36	.259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0.06	1.06	.158	0.03	1.03	.555	0.02	1.02	.708	
Value on family													
Opinions on divorce ^{3)†}	Agree						-0.34	0.71	.259	-0.15	0.86	.633	
	Not agree						1.51	4.52	.000	1.34	3.81	.000	
Opinions on remarriage ^{4)†}	Agree						1.09	2.99	.001	1.13	3.09	.001	
	Not agree						-1.14	.87	.759	-0.29	0.75	.528	
Value on marriage										-0.23	0.80	.000	
Constant	3.13	22.85	.020	2.09	8.07	.147	1.72	5.60	.303	4.07	58.76	.025	
χ^2	22.81(p<.05)			25.53(p<.001)			78.03(p<.001)			94.13(p<.001)			
df	5			6			10			11			

† 'Not sure' was not included.

※ Reference group ¹⁾ Graduate school ²⁾ No ³⁾ Optional ⁴⁾ Optional

3.5 30-34세와 35-39세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이

대상자를 30-34세와 35-39세 두 집단으로 나누어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투입변수의 효과를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두 집단의 최종 모델을 전체 대상자의 최종모델과 같이 [Table 4]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 즉, 이혼 견해, 재혼견해, 결혼관 모두 두 집단에서도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30-34세 집단과 달리 35-39세 집단에서는 경제활동 여부도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 결혼 견해 영향 요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35-39세 미혼여성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결혼 찬성 견해가 높은 것(Exp(b)=19.58, p=.003)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만혼과 비혼 현상을 3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견

해와 영향요인 파악을 통하여 이해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결혼견해를 보면 결혼에 찬성하는 경우가 30.3%였는데 이는 동일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한 Lee[7]의 20-44세 미혼여성의 결혼 찬성율 6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30-34세 미혼 여성의 결혼 찬성 견해는 75.4%로 Lee et al.[24]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의 30-34세 미혼 여성의 결혼 찬성율 59.5%에 비해 높았으나, 35세-39세 미혼 여성의 결혼 찬성 견해는 20.6%로 연령의 준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혼 여성 35-44세의 결혼 찬성율이 26.2%[7]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미혼 여성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결혼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의식과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7]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나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주장[24] 또한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미혼남녀 고연령층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결혼으로의 이행을 늦추거나 평생 비혼

[Table 4] Factors Affecting Opinions on Marriage of Subjects : Age groups

Variables	Total (n=484)			30-34year (n=343)			35-39year (n=141)			
	b	Exp (b)	p	b	Exp (b)	p	b	Exp (b)	p	
General characteristics										
Education ¹⁾	High School or less	-0.50	0.61	.240	-0.27	0.77	.621	-0.93	0.40	.223
	College	-0.08	0.92	.840	0.15	1.16	.763	-0.62	0.54	.472
	University	0.27	1.31	.484	0.66	1.94	.164	-1.11	0.33	.145
Economic activity ²⁾	Yes	0.32	1.37	.244	-0.23	0.79	.451	2.98	19.58	.003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		0.03	1.03	.571	0.01	1.00	.951	0.07	1.07	.490
Value on family										
Opinions on divorce ^{3)*}	Agree	-0.20	0.82	.527	-0.21	0.81	.565	-0.62	0.54	.381
	Not agree	1.37	3.94	.000	1.39	3.99	.000	1.71	5.55	.010
Opinions on remarriage ^{4)*}	Agree	1.13	3.10	.001	1.17	3.21	.003	2.03	7.63	.010
	Not agree	-0.26	0.77	.558	-0.09	0.91	.856	-0.76	0.47	.381
Value on marriage										
Constant		-0.23	0.80	.000	-0.19	0.83	.005	-0.46	0.64	.003
		0.55	1.74	.536	0.66	1.93	.559	0.36	1.44	.845
χ^2		88.93(p<.001)			65.05(p<.001)			41.47(p<.001)		
df		10			10			10		

* 'Not sure' was not included.

※ Reference group ¹⁾ Graduate school ²⁾ No ³⁾ Optional ⁴⁾ Optional

으로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7]에 비추어 볼 때, 이 결과는 저출산 정책 수립에서 변화된 결혼 견해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에 따라 결혼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미혼여성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에 찬성할 확률이 높았다. 이는 미혼남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7,8]와 일치하는 결과였는데, 이것은 여성의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져 학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의 시기를 늦게지 된 것에 이어 40대로 갈수록 결혼의사가 약해진 것의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성 연령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연령차를 분석한 Lee[25]의 연구에서 남성이 30대 후반에서 40대로 갈수록 부부의 연령차가 더 커지므로 30대 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결혼기회가 줄어드는 불균형의 구조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결혼적령기를 넘긴 여성들이 결혼을 희망하나 전문직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상위층으로 갈수록 배우자 선택의 폭이 좁아져 결국 결혼을 포기하는 비자발적 비혼으로 남게 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비자발적 비혼 의사를 조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한 반복 연구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행연구[7,8]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른 결혼 견해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결혼견해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20-44세 미혼여성에서 대학 졸업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결혼 의향이 더 높았다는 선행 연구[7]와 일치하였던 반면에, 연령대를 좁힌 29-39세 미혼 여성에게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 의향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3], 그리고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의 조절변수를 조사한 Kim[22]은 사회경제적 변수로 학력만 투입하였을 때는 결혼의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여성이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를 투입했을 때 대학졸업 이하 여성의 결혼의향보다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 졸업자 비율이 45.6%로 2009년 Kim[22]의 연구에서의 27.7%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대학 졸업자의 변화된 결혼 견해가 더 잘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자 전체의 결혼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가족관 중 이혼에 대한 견해와 재혼에 대한 견해, 그리고 결혼관이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일반적 특성. 가족관, 결혼관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결혼견해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찬성 견해가 증가한 것이 연구 대상자를 30-34세 집단과 35-39세 집단으로 이분하여 두 집단의 결혼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게 된 다른 근거가 되었다.

미혼 남녀는 가족내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혼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다[7]. 가족관계 만족도와 결혼견해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미혼 남녀 모두 부모관계가 원만하다고 인지할수록 긍정적 결혼태도를 보였다고 한 Kim[26]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었으나, 젠더관점에서 결혼선택의 규정요인을 조사하면서 남성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결혼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12]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한편, 부모를 분리하여 측정한 연구도 있는데 남성은 어머니와 유대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을 선호하였고, 여성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하였다[27].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분리하여 측정하지 못하였고 가족관계 만족도에 형제자매 관계 만족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결과와 직접 비교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향후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가족관계 만족도를 주요 변수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관이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혼견해와 재혼견해가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수록, 재혼에 대해서는 허용적일수록 결혼 찬성 견해를 보였다. 이혼에 대해 반대할수록 결혼 찬성 견해를 보이는 본 연구결과는 초·중등학교 여학생의 이혼 허용태도가 결혼희망 연령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던 반면에[13], 미혼 남성에게서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긍정적 결혼태도와 관련 있었으나, 미혼여성에게서는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결과[26]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한편 재혼 견해가 결혼견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재혼가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는 미혼여성의 결혼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것(26)과는 상반된 것이었다. Yoo[20]는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 청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40대와 20-39세 집단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도가 더 높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가질수록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즉, 본 연구 대상자인 30대 미혼여성의 이혼이나 재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혼 견해와 재혼 견해는 다음의 역동으로 결혼견해에 영향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혼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고수하는 결과 가족 구성을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재혼을 허용하는 여성 또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고수하는 가치관을 가지므로 역시 결혼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혼과 재혼 견해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일점을 찾지 못했으므로 향후 다양한 계층에서의 반복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30대 미혼여성이 개방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견해가 부정적이었다. 개방적 결혼관은 혼전 동거, 가족관계보다 개인중심 결혼생활 중시, 외국인과의 결혼, 비혼모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경향을 말하며, 사회조사의 원자료에는 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로 측정되어졌고, 규범중심의 결혼보다 개인의 가치 선호 중심의 결혼 가치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결혼관 척도를 사용한 연구를 찾기 어려워 유사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연구 결과는 Lee[7]의 20-44세 미혼여성의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으나, 이 연구는 2005년 자료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 대상자와 연령층이 달랐으므로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족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해서 단편적인 변수 하나로 결혼의향의 감소 등을 논할 수 없으나[7], 최근에 과거의 당위적 결혼규범이 쇠퇴하고 개별화된 욕구와 가치의 충족으로의 결혼이 더 우세하다는 주장[8]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혼전 동거에 대한 수용도와 부정적 결혼견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일찍이 서구 사회에서는 혼전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결혼율의 하락이 나타난 바 있어 우리사회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있어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Lee[7]는 우리사회의 가치관 변화 양상이 서구사회와 다르게 전통적 규범에서의 무조건적 이탈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편적인 판단

보다 장기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30대 미혼여성이 이혼에 반대할수록 그러나 재혼에는 찬성할수록 결혼 찬성 견해를 보이는 것과 같이, 가족관이 결혼견해에 미치는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과거 규범에 따르는 것과 개인의 선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조망이 요구된다.

30-34세 미혼여성 집단과 35-39세 미혼여성 집단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는 경제활동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35-39세 미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결혼 찬성 견해를 보인 것은 Kim et al.[3]의 연구에서 35-39세 미혼여성 중 블루칼라 집단보다 화이트칼라 집단에서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었다. Kim et al.[3]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현실적으로 결혼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결혼의향이 커진다고 하였고 이 때 사회경제적 변수는 가족가치관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경제력을 갖춘 35-39세 미혼여성의 긍정적 결혼견해에 적합한 결혼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횡단적 연구가 갖는 제한성이다. 한 번의 시점에서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여 종속변수와 관련성을 보았으므로 시점 추이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사회조사 자료를 이차 자료로 분석한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선정하는데 제한성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결혼 견해에 영향한다고 알려졌으나 사회조사에서 측정되지 못하였던 변수들, 예로, 성역할 가치관, 자녀 가치관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고, 대상자의 미혼상태가 본인의 자발적 선택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전국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대표성이 확보된 2012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대 미혼여성의 결혼 견해를 조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것은 의의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30대 전·후반 미혼여성의 결혼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고려한 저출산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주목받

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은 미혼 남녀의 부정적 결혼견해와 관련 있다. 본 연구에서 2012년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대 미혼여성의 결혼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이혼에 대한 견해가 부정적일수록, 재혼에 대한 견해가 긍정적일수록 결혼 찬성 견해가 뚜렷하였고, 개방적 결혼관을 가질수록 결혼 반대 견해가 강하였다. 특히 35-39세 미혼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결혼 찬성 견해를 더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가족과 결혼 가치관이 결혼 견해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바 가족과 결혼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것과, 35-39세 중 경제 활동을 하는 미혼여성에게 적합한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n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4 [cited 2014 Nov 24]. Available From: http://www.mw.go.kr/front_new/sch/index.jsp(accessed Nov., 24, 2014)
- [2] E. Y. Kang, M. J. Chin, S. W. Ok,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ness: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2):135-144, 2010.
- [3] H. Y. Kim, B. Y. Sun, S. D. Kim, "Women'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123-147,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0.
- [4] Statistics Korea. 2013 report on marriage and divorces statistics[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cited 2014 April 25]. Available From: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13371. (accessed Nov., 24, 2014)
- [5] S. Y. Lee, "An analysis of differential non-marriage and divorce proportions by educational level in Korea:1995-2010".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4):1-24, 2013.
- [6] R. A. Pollak, S. C. Watkins, "Cultural and economic approaches to fertility: Proper marriage or mesallianc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467-496, 1993. DOI: <http://dx.doi.org/10.2307/2938463>
- [7] S. S. Lee,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95-140, 2006.
- [8] M. J. Chin, H. E. Chung,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 (3):31-51, 2010.
- [9] K. S. Chung, H. Y. Kim, "Family change in Korea through the examination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1991 and 2008",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6(1):175-202, 2013.
- [10] E. S. Cho, "The effect of the perceived family strength on marital and family value amo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2007.
- [11] S. J. Lee, "Determinants of marriage selection-Focused on the gender difference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5(1):131-156, 2005.
- [12] C. A. Kapinus, "The effect of parents' attitudes toward divorce on offspring's attitudes: Gender and parental divorce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5(1):112-135, 2004. DOI: <http://dx.doi.org/10.1177/0192513X02250860>
- [13] J. Y. Yu, "The study o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amily values", *Social Studies Education*, 51(3):15-33, 2012.
- [14] K. S. Baek, H. S.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gender-role attitudes and family functioning on perceptions of marriag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3): 205-223, 2013. DOI: <http://dx.doi.org/10.13049/jofw.2013.18.3.205>
- [15] Y. K. Chung, J. H. Choi, "The effect of parents' marital quality on married women's marital adjustment and perspective toward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15(3): 331-353, 2010.
- [16] J. S. Joo, Y. K. Moon, Y. T. Kim, C. S. Song, G. P. Park, C. K. Son, G. J. Le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The 2013 Annual Report", 65-67,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3.
- [17] H. S. Jang, "The relationship of developmental tasks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2(1):19-36, 2009.
- [18] Y. H. Ju, E. S. Jung, M. S. Shim, "The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value on marriage, children and sexual attitude", *The Journal of Policy & Management*, 11(9):267-278, 2013.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9.267>
- [19] Statistics Korea. The social survey in 2012[Internet]. Seoul: Statistics Korea, 2014[cited 2014 April 25]. Available From: <http://mdss.kostat.go.kr/mdssex/DataProcessing/extracti on/OfferRange.jsp?menu=3>. (accessed Nov., 24, 2014)
- [20] G. Y. Yoo, "A survey of people's acceptance of family diversity and related variables", *Family and Culture*,

17(2): 211-233, 2005.

- [21] H. H. Kim, T. H. Kim, "The family value changes and educational enforcement in the low fertility period",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1):21-35, 2008.
- [22] J. B. Kim, "The study of moderating effects upon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Journal of Social Science*, 39(1):1-24, 2013.
- [23] S. S. Lee, H. G. Choi, Y. H. Oh, M. H. Seo, S. K. Park, S. R. Doh, "2009 National survey on dynamics of marriage and fertility", 60-78,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Affairs-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
- [24] M. J. Park, "Changes in the meanings of marriage in Korea", *Family and Culture*, 16(1):109-135, 2004.
- [25] C. S. Lee, "Sociodemographic factors in non-mariage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49-71, 2012.
DOI: <http://dx.doi.org/10.15820/khjs.2012.38.3.003>
- [26] Y. L. Kim, "A study on the marriage value and it's associated variables for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based on the family ecological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2008.
- [27] J. Y. Park, Y. R. Kim, "The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perception on marriage attitudes of single males and femal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48(4):13-24, 2010.
DOI: <http://dx.doi.org/10.6115/khea.2010.48.4.013>

권 현 수(Hyun-Soo Gweon)

[정회원]



- 199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7년 2월 ~ 2009년 2월 : 계명문화대학 사회복지상담과 전임강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지역복지실천, 가족복지

이 성 희(Sung-Hee Lee)

[정회원]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2005년 1월 : 서라벌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 2005년 2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저출산 정책, 생식건강증진